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6월 5일(주일) 제1102호



'온누리M센터' 전경.



선교사 숙소동 '베데스다' 전경.

온누리M센터 헌당, 선교사 숙소동 '베데스다' 개관

온누리M센터, 이주근로자, 교회, 지역사회의 구심점 베데스다, 선교사 숙소 제공, 성도들의 영성훈련장

지난 주일(29일) 온누리M센터 헌당예배와 선교사 숙소동 '베데스다' 개관예배를 드렸다.

온누리M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넓이는 1,350㎡다. 지하 1층에는 5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온누리홀이 있고, 멀티미디어실, 어린이를 위한 공간 등이 있다.

1층에는 스타트리 아카데미, 치과 치료실 등이 있다. 2층에는 다문화 도서관이 있고, 조이

홀, 다문화 평생교육원, 자원봉사실, 사무실 등이 위치해 있다. 3층에는 평화홀, 4층에는 식당이 있다.

온누리M센터 헌당예배에는 외국인 이주근로자, 이재훈 담임목사, 당회서기 정과중 장로, 제종길 안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온누리M센터는 이주근로자, 교회, 지역 사회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1993년부터 이주민사역을 시작했다. 2005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온누리M센터를 세우고 10개국어로 예배드리다 이번에 예배처소를 신축하면서 이전하게 됐다.

현재 온누리M센터에서는 언어별 예배, 다문화 차세대 예배,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스타트리 아카데미' 등 14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선교사 숙소동 '베데스다' 개관예배를 드렸다. 선교사 숙소동 베데스는 고국에 온 선교사들에게는 숙소를 제공하고 성도들의 영성훈련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선교사 숙소동 베데스다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가족단위 혹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이 40여 개나 된다. 최대 15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는 공간도 있다. 지하 1층에는 강의실과 실내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교사 숙소동 '베데스다' 개관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당회서기 정과중 장로, 황종연 목사(Acts29 비전빌리지 원장), 도육환 목사(양지 온누리교회)등 온누리교회 리더십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관련기사 4-5면>.

/ 김미림, 김영선 기자

군선교팀, 논산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

훈련병 5,316명 예수 믿고, 세례 받아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5,316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지난 28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온누리교회 주최로 진중세례식이 거행됐다.

이날 진중세례식에는 온누리교회 목회자 64명, 장로 105명, 권사, 집사 105명 군선교팀 38명, 간사 3명 등 총 315명이 참석했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은 이날 세례 받은 훈련병들에게 성경책, 십자가 목걸이 등을 증정했고, 연무대군인교회는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에게 기념액자를 선물했다.

이날 이기원 목사(목회기획)는 '선한 일을 시

작하신 분'을 주제로 설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전역하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훈련병들을 응원했다.

박찬희 훈련병은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서 "앞으로 주일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군 생활을 할 것"이라고 했고, 오민 목사(강남A공동체)는 "훈련병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올 만큼 은혜로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련기사 6면>

/ 김영선 기자k4458@onnuri.org

마리아행전 '예수님처럼' 참가자 모집

6월 22~2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2016 마리아행전은 '예수님처럼'을 주제로 진행된다. '예수님처럼 바라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다', '예수님처럼 살다'를 주제로 강의와 기도회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6월 15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서빙고 온누리교회 목회행정실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사전등록 2만원)이다. 선착순 마감되며 당일 등록은 받지 않는다. 마리아행전에 참석하는 여성들은

흰색 상의와 짙은 색 하의를 입어야 한다.

이번 마리아행전 '예수님처럼'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천종호 판사(부산가정법원),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담임), 탈북청년 강디모데 형제(엔케이피플 대표), 전우택 교수(연세대학교 의학교육과, 정신건강의학과), 이한영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윤정희 사모(강릉 아산병원 원목), 유정옥 사모(소중한사람들 대표) 등이 강의한다. 문의: 02-3215-3355

입금계좌: 하나은행 573-910011-58705,

온누리교회 여성사역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잃어버린 양 찾아다니는 한경숙 목사

경북 안동 신전교회로 여름 아웃리치 가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본지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역, 기독교 기관 및 단체, 이웃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열여덟 번째 주인공은 경상북도 안동시 신전리에 위치한 신전교회다. 양재 농어촌선교회가 섬기고 있는 교회다.

지난겨울 이재훈 담임목사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재훈 목사님께, 저희 신전교회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목회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주민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성도들은 토요일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대소변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꼭 좀 도와주세요...”

편지를 보낸 주인공은 경상북도 안동시 신전교회 한경숙 담임목사다. 편지를 읽은 이재훈 담임목사가 양재 농어촌선교회에게 신전교회를 섬겨줄 것을 부탁했고, 양재 농어촌선교회 재능기부팀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달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경상북도 안동 신전교회를 찾아가 화장실을 만들고 있다. 조만간 신전교회에 멋진 화장실이 완공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편지에 담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왔다.

“교회 없이는 못 살아요”

한경숙 목사는 경북 안동 신전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반년 지났다. 농촌목회를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환갑 넘어 시작한 목회인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하고 싶었다. 신전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한 목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신전교회 담임 목사 위임예배를 드렸다. 아주 오랜만에 성도가 모인 예배였다. 그동안 신전교회에는 성도가 거의 없었다. 물론 한 목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때 성도 7명이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렸어요. 그분들이 신전교회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위임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목사가 몹시 당황했다. 위임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식사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다.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한 성도가 “떠나는 목사님에 대한 예의 때문에 참석한 것이지 신전교회 성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성도들의 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주 주일예배에는 성도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교회를 가만히 둘러보는데 조금 이상했다. 화



▲건축 중인 화장실(왼쪽)과 임성종 집사, 이종태 사부, 한경숙 목사, 임정욱 집사(오른쪽부터).



▲마을 어귀에서 바라본 신전교회.

장실도 없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흔적들이 가득했다. 성한 구석이 없었다. 한 목사는 도대체 신전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7년 전 교회건축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성도들이 모두 도시교회로 떠나면서 교회 건축을 마무리 하지 못했다. 그래서 신전교회에 화장실이 없었던 것이다. 아직까지도 납입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천만 원이나 있었다. 밀린 공사대금과 내부시설을 정리하는데 이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었다. 마침 그 정도 여윌 돈이 있었다.

“목회자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교회 없이는 못 살잖아요. 한 톨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마중물 성도 찾기

그때부터 한 목사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 지역 주민 중에 그 누구도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마음을 여는데 5~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텐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었다. 교회와 지역주민들을 이어줄 ‘마중물 성도’가 절실했다. 한 목사는 “딱 한명이면 된다”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두 명의 성도를 보내주셨다. 임성종, 임정욱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임성종 집사는 집안대대로 신전교회 사랑이 대단했다. 임성종 집사의 할아버지가 82년 전 신전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다. 육십 평생을 신전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도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다. 신앙까지 좋으니 이보다 더 좋은 마중물 성도는 없었다.

“항상 교회 가야지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부부가 교회에 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교회로 오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빨리 교회에 안 가면 하나님께서 혼내실 것 같더라고요.”

한 목사는 임 집사 부부와 협심해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시작했다.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

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 교회에 등 돌린 성도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목사님 찾아 오지마세요, 교회 안 나갑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이미 시내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많았다. 그 성도들에게 신전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저 성도들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한 명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한 목사는 주민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일이 자신의 일인 양 정성을 다해 섬겼다. 얼마나 지극 정성으로 섬겼으면 지난 1월에는 지역노인회에서 주일날 단체로 신전교회를 방문했다. 한 목사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든 보답을 해주고 싶었는데 해 줄 것은 없으니 예배라도 드리자면서 교회에 온 것이다.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 둘씩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지난 주일(5월 29일)에는 11명의 성도가 신전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중 3명은 차세대였다. 6개월 만에 이뤄진 부흥이었다. 한 목사가 얼마나 열심히 영혼을 구원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드디어 화장실이 생긴다

그동안 한 목사의 정성스런 섬김과 전도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주민들도 있었다.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화장실이 없어서였다. 화장실이 없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불편함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성도들은 토요일 오후부터 물도 마시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슬펐는지 모른다. 밀린 건축대금을 해결하는데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화장실을 건축할 자금이 없었다. 그러다 온누리교회가 생각났다. 한 목사는 온누리교회가 ‘교회를 돕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재훈 담임목사에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요청했고, 온누리교회가 흔쾌히 도와줬다. 빠르면 이달 안에 화장실이 완공된다. 한 목사는 서늘에서 3시간도 더 걸리는 경북 안동의 신전교회 매주 찾아가 섬겨주는 양재 농어촌선교회 재능기부팀 성도들이 너무 고맙았다.

“화장실이 완공되면 기념예배를 드리고, 마을 주민들을 초대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화장실 생겼다고 자랑도 할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서 교회에 오지 않던 주민들이 이제는 교회에 나올 겁니다.”

화장실을 만들어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온누리교회가 한 목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여름 아웃리치다. 신전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강남B공동체가 여름 아웃리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주 강남B공동체 성도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들의 영성이 대단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분명 이 지역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한 목사는 63세다. 올해 4월 목사안수를 받은 새내기 목회자다. 목회 경험은 짧지만 경북 안동지역 목회자 모임에 나가면 “대단한 목사님”, “뜨거운 목사님”으로 통한다. 그만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한 목사가 신전교회를 사역지로 선택했을 때 많은 지인들이 “평생을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왜 갑자기 농촌교회냐, 나이가 많은 여자 목회자는 농촌목회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말렸다. 지인들의 걱정은 기우였다. 지역주민들도 한 목사를 참 좋아한다. 신전교회에 우렁각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시도 때도 없이 교회 문 앞에 지역주민들의 선물이 쌓여있다. 한 목사는 주민들 덕분에 올봄에 나물이란 나물은 다 먹었다.

“저에게는 주민들이 주신 산나물은 ‘이거 먹고 힘내서 우리 영혼 구원해주세요’라는 구조 신호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다 찾고, 이 지역 어르신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신전교회와 함께 하면 좋겠다. 아웃리치를 가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안동 신전리 일대는 사과가 특산품이다. 8월과 9월이 수확 시기다. 그 때 그 지역을 찾아가 섬기면서 지역주민들의 손발이 되어주자.

문의: 한경숙 목사 010-2599-7117

임신빈 팀장 010-9085-1677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19세기 중반 3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을 세 번이나 횡단하면서 60만 명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813~1873년까지 사셨습니다. 선교 역사의 기념비적인 인물입니다. 가난하지만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그분은 매일 14시간씩 방적공장에서 일하면서 의료선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어느 곳이든 보내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저와 그곳에 함께 거주하십시오. 어떤 집이든 주십시오. 견뎌낼 힘을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심장과 주님을 섬기는 관계로만 저를 묶어 주십시오.”

헌신의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의 음성이 뚜렷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가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30여 년 동안 목숨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으로 의료선교를 가려고 했지만 아편전쟁이 일어나서 들어가지 못했고, 서인도제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서 가장 어려운 지역인 아프리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유럽에도 알려지지 않았고, 중동의 일부 사람들이 노예를 팔기 위해 들어갔던 그 땅에 그분이 첫 번째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 이야기

그분은 30년 동안 세 번이나 아프리카 남부, 중부, 동부지역을 관통하면서 지도를 만들고, 탐험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만든 지도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유럽이 아프리카 대륙의 지리학적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로도 유명하지만 영국이나 유럽의 지리학회에서 더 유명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프리카 대륙을 다니면서 당시 성행하던 노예무역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정무역을 주창하면서 노예무역을 금지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아프리카 대륙을 다니면서 선교를 위해 만든 지도가 노예무역상에게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일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선교여행을 하면서 맹수와 백인은 무조건 죽이는 원주민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사자에게 어깨를 물려서 한쪽 어깨를 완전히 못쓰게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것은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위협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한 호수 근처 오두막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를 미라로 만들어 8개월 동안 1,600km를 걸어서 시신을 운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데이빗 리빙스턴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리빙스턴은 질병과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위협에 시달렸고, 사도 바울은 질병과 유대인들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누구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가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비굴하게 살고자 변명하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고, 선한 양심을 굽히지도 않았습다.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통합한 기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려들어 있는 이슈는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을 내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하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문건을 보면 그 문제만큼은 산헤드린 공회에 사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정을 따라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한 양심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1절).

그는 진실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오해와 때로는 공격 속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선한 양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입을 치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순서와 절차를 어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나니아의 폭력적이고, 조급하고, 비겁하고, 과격하고, 불같은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지지 않았습다. 그러한 명령에 수그러들지도 않았습다.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신사적으로 그러나 담대하게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화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3절).

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다. 그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한 말도 아닙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얼마나 부패하였고, 진실에서 떠나있는지, 왜곡된 사실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요, 진실을 떠난 모습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당시 최고 지도자인 헤롯의 부패에 대해서 담대하게 직언하고, 비판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4절)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다. 대제사장이 의복을 안 입고 있었다든지,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접할 기회가 없다든지, 시력이 약했다든지, 어두워서 못 봤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다. 기록되기를 ‘네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5절).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비판과 저주와 모욕은 다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모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는 담대하면서도 신사적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사적입니다. 예의를 갖춥니다. 담대함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무조건 저주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할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사적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신사적으로 대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사울을 내가 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사회는 양극단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적이 되는 사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견과 인격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면 자신의 인격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의견과 인격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격에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견과 인격이 다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저주하고,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의견에 반대하면 자신을 모독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격과 의견을 합쳐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치열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권위는 존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켰고, 율법대로 대제사장 앞에서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발뺌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말해 놓고선 몰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고,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대하다 보면 비신사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사적이 되다 보면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신사적으로, 인격을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면서 선한 양심을 따라 담대하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사명자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격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를 염려했습다.

(13편에 계속)

이주근로자,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온누리M센터 지하 2층, 지상 4층 예배처소 헌당예배

새로 건축한 온누리M센터 예배처소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다. 지하 1층에는 5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온누리홀이 있고, 멀티미디어실, 어린이를 위한 공간도 있다. 1층 로비에는 스타트리 아카데미, 치과 치료실, 의료실이 있다. 2층에는 다문화 도서관 '숲'이 있고, 조이홀, 다문화 평생교육원 등이 있다. 3층에는 평화홀, 4층에는 '만나홀'이라는 이름으로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식당이 있다.

온누리M센터가 예배처소를 신축하면서 외국인 이주근로자들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기대를 한껏 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산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문화 공간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 시화·반월공단이 조성된 이후 서울에 있던 공장들이 안산으로 이주했다. 당시 안산으로 이주한 공장의 70% 이상이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었다. 대기업의 하청을 받은 사양산업형, 공해유발형, 저부가가치의 대수 위주 공장들이었다. 시화·반월공단 노동자들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터전을 잡기 시작했다. 정부는 1992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이주근로자들의 고용을 허용했다. 그때부터 외국인 이주근로자들이 안산에 많이 들어왔다.

지금은 안산을 '국경없는 마을'이라고 부른다. 특히 안산시 원곡동은 대표적인 다문화마을로 손꼽힌다.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6만 9,413명에 이르는데 단원구에만 5만7,088명이 살고 있다. 출신국가는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을 비롯해 우간다, 탄자니아, 튀니지 등 무려 76개국이나 된다. 안산시 원곡동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가 직영하는 외국인 주민센터와 보육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은 다문화 지역, 국경 없는 마을이 되었다. 외국인 이주근로자들과 어떻게 하면 공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중심에 온



누리M센터가 있다. 찾아오는 선교지 외국인 이주근로자들을 섬기고, 선교해서 고국으로 역파송하겠다는 온누리M센터의 꿈이 이제 손에 닿을 것 같다. 외국인 이주근로자들의 완전한 복음화를 위해 온누리M센터가 더 큰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할 때다.

다문화, 지역사회, 교회가 공생

온누리교회는 '온누리M미션'이라는 이름으로 1993년부터 이주민 선교를 시작했다. 온누리M미션의 'M'은 이주민(Migrant)을 어머니(Mother)의 긍휼(Mercy)함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선교(Mission)해서 선교사(Missionary)로 역파송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온누리M센터는 2005년 설립됐다. 건물을 임차해서 예배드리다 이번엔 예배처소를 신축했다. 온누리M센터는 러시아, 몽골, 스리랑카, 필리핀어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다. 2005년 12월 방글라데시, 2009년 1월 평택 온누리교회 몽골어예배,

2010년 3월 인천 온누리교회 몽골어예배, 2011년 9월 캄보디아어예배, 2012년 9월 네팔어예배, 2013년 9월 미얀마·태국어예배, 2014년 9월 베트남어예배를 개척했다. 지금 온누리M센터에서는 10개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온누리M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던 수많은 외국인 이주근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들은 온누리M센터를 영적인 고향이라고 부른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슬람권(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예배도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온누리M미션은 외국인 이주근로자들을 위한 세례식을 1년에 1회 개최한다. 1997년 3개국에서 온 이주민 근로자 7명이 세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세례를 받은 외국인 이주근로자 수가 급증했고, 국가도 다양해졌다. 지금까지 외국인 이주 근로자 443명이 세례를 받았다. 몽골 103명, 러시아 64명, 네팔 58명, 우즈베키스탄 52명, 캄보디아 29명, 카자흐스탄 12명, 중국 11명, 태국 11명 순이다. 또

한 온누리M미션은 외국인 이주근로자들을 마음을 위로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온누리M센터에서는 외국인 이주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0년 5월 시작된 다문화자녀를 위한 '스타트리 아카데미'가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스타트리 아카데미는 한국식 교육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방과 후 교실이다. 한국어, 수학, 영어, 음악, 미술 등을 매일 40명 정도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성적도 향상시키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있다. 다문화자녀를 위한 주일예배도 신설됐다. 2010년 7월 다문화 꿈땅(초등부)예배를 시작으로 2015년 1월 다문화 파워웨이브(중고등부), 2016년 5월 다문화 예꿈(유치부)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언어, 문화,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섬기는 것은 온누리M센터의 또 다른 비전이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목회칼럼

이주민 선교와 온누리M센터

한국교회 중에 건강한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5만 개 정도다. 그 중에서 이주민 선교를 하는 교회는 고작 500개에 불과하다. 한국 교회의 1%만이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약 200만 명이다. 그 중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이주민은 2~3만 명 정도다. 1%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농어촌으로 갈수록 다문화가정이 많다. 부부 네 쌍 중에 한 쌍이 다문화가정이다.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떠느리가 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엄청난 숫자다. 얼마 전 온누리M센터에서는 충북 회남 농촌교회로 1박 2일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그 마을에는 청년이 없었고, 베트남에서 온 이주여성들이 많았다.

한국 정부는 이주민 숫자를 2016년 200만 명, 2020년 300만 명, 2030년 5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기도 안산시 인구의 11%가 외국인이고, 원곡동에만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근로자는 산업인력으로 유입되었고,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에서 공장 및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

온누리M센터는 이주근로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근로자는 주로 20~30대다. 그들 대부분이 국제결혼을 하거나 돈을 벌려고 왔다. 의사소통에 능통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들을 위해서 온누리M센터는 창의적 접근을 시

도하고 있다. 첫째, 아버지, 어머니학교, 와이즈 마더링 프로그램을 국가별로 시행하고자 한다.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와이즈 마더링'을 했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둘째, 다문화를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외국인 이주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의 취약점이 언어다. 그들을 위한 한국어 토픽시험, 컴퓨터 교실, 자격증 육성과정을 만들 계획이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안산에 한양대, 안양대학교 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국가에서는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유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말이다. 온누리M센터는 온누리

교회, 순복음교회, 유학생교회를 연합해 '유학생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교는 타문화 선교이자, 사회선교다.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이주민 선교다. 선교적, 국가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주민 선교다. 한국에서 잘 성장한 이주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두 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누리M센터는 오늘도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유학생을 품고 섬기고 있다.



노규석 목사
(온누리M센터)



선교사 숙소동 베데스다 전경.

선교사 숙소, 성도들의 영성훈련장

Acts29 비전빌리지, 영혼이 쉬어가는 ‘베데스다’ 오픈

선교사 숙소동 베데스다가 문을 열었다. 지난 29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베데스다 개관예배를 드렸다. Acts29 비전빌리지는 베데스다 개관으로 1996년 온누리일만이천훈련원, 2002년 온누리세계선교센터, 2010년 Acts29 비전빌리지 개관에 이어 네 번 째 도약을 하게 됐다. 베데스다는 선교사들의 쉼터이자 성도들의 영성훈련장으로 사용된다.

선교사 숙소동 베데스다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다. 가족단위 혹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이 40여 개 있다. 최대 15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도 있다. 지하 1층에는 강의실과 실내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

련할 계획이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양의문 근처에 있는 호수 이름이다. 이 호수에 가끔씩 주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가장 먼저 호수에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나았다고 한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호숫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다. 선교사 숙소동 개관예배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베데스다의 기적’을 주제로 설교하면서 선교사 숙소동 이름을 베데스다로 지은 이유를 설명했다.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데스다를 찾는 선교사들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육과 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베데스다로 지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베들레헬, 베다니에 이은 Acts29 비전빌리지의 세번째 숙소동이다. 그동안 비자 갱신, 선교연구, 안식년 등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에게 숙소문제가 큰 고충이었다. 기존에 있던 숙소만으로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많은 선교사들이 숙소가 없어 불편함을 겪었다. 그래서 선교사 숙소동 베데스다를 오픈하게 됐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인데 3층이 오롯이 선교사들을 위한 공간이다. 3층에는 선교사 가족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거실과 방 2개, 숙소가 6개 있고, 개인과 부부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원룸 형태의 방도 7개나 된다. 1, 2층은 열린 공간으로 선교사와 성도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원룸형태의 방이 30여개나 준비되어있다. 방은 모두 온돌이다. 지하 1층에는 세미나, 예배 등

을 진행할 수 있는 강의실과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베데스다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영성훈련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된다. 사실 그동안 세미나와 수련회를 진행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었지만 선교사 숙소동 베데스다가 문을 열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서울 근교이고, 최대 150여명까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 중소규모의 수련회를 개최하기에 적합하다. 지난달 20일과 21일에 장로아카데미 영성수련회도 베데스다에서 진행됐다.

선교사 숙소동 베데스다는 선교적 삶을 위한 훈련장소,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구체화하는 장소, 장기선교사 훈련장소, 민족과 열방을 위해 24시간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를 세우는 장소, 국제적인 선교 컨퍼런스 등 전략적 선교네트워크를 위한 장소로 사용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목회칼럼

“누구든지, 지치면, 언제든지”

Acts29 비전빌리지에는 온누리교회 모든 선교기관이 모여 있다. 선교사훈련, 선교연구, 선교사 돌봄 등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진행된다. 2002년부터 양지에서 선교사훈련이 진행되었는데 지난 14년 동안 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채워졌다. Acts29 비전빌리지 본관 건물이 지어지고, 훈련생들을 위한 숙소가 지어졌다. 선교사들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양지 온누리교회나 Acts29 비전빌리지를 방문한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당일에 왔다 가거나, 빈 공간 바닥에서 자기도 했다. 꾸준히 선교사 숙소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선교사 숙소동 베데스다의 건축이 이

루어졌다. 베데스다 3층이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다. 850여 명의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일정기간 쉬면서 영육을 회복하고, 선교에 대한 연구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베데스다 1층과 2층은 수련회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온누리교회에는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 앞으로 베데스다 1, 2층 공간은 150여 명을 수용하는 영성훈련의 장소로 사용될 것이다.

베데스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장소다. 이전부터 양지는 영성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하용조, 옥한흠, 홍정길 목사님도 젊은 시절 이곳에서 사역을 계획했다. 1995년부터 2천1만 비전을

따라 훈련의 장이 만들어졌고, 2002년부터 장기선교사훈련학교와 단기선교사훈련학교를 통한 본격적인 선교사 훈련이 시작되었다. 베데스다가 생기면서 온누리교회 평신도들도 이곳에서 영성을 새롭게 하고, 영과 육을 회복시키고,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베데스다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서, 자신을 정리하고, 예수 바보행전을 써 나갈 수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Acts29 비전빌리지는 한국기독교의 선교영성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하용조 목사님 기념관과 채플, 묘소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세워진 순교자기념관이

있다. 순교자기념관과 하용조 목사님의 기념관과 채플, 묘소를 방문하면서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선교의 흐름을 체험할 수 있다. Acts29 비전빌리지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영성이 있는 곳이다.

베데스다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누구든지 지치면 언제든지 들어와 쉴 수 있다. 베데스다는 하나님을 만나 육체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장소가 될 것이다.



황중연 목사
(Acts29 비전빌리지원장)

군복음화의 최전선 ‘진중세례식’

군선교팀,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 5,316명에 세례 베풀어

무려 훈련병 5,316명이 세례를 받았다. 군선교팀이 지난 28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진중세례식을 거행했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64명이 세례를 베풀고, 장로 105명, 권사, 집사 105명, 군선교팀 38명, 간사 3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훈련병들을 축복했다. 군복음화의 전초기지인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열린 진중세례식 현장에 다녀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입대하고 5주 동안 실시되는 기초 군사훈련 기간은 훈련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골든타임이다. 훈련병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장병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막 입대한 훈련병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감정은 두려움일 것이다. 낯선 환경에서 온갖 걱정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복잡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훈련병들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한줄기 빛이 있다. 바로 복음이다.

훈련병들은 입대하고 2~3일 후에 교회를 방문한다. 많은 훈련병들이 “초코과자를 먹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 위로받고 싶은 것이다. 초코과자는 덤이다. 난생처음 간 교회에서 하나님과 마주한다. 찬양과 말씀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는다. 그러면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훈련병이 연간 6~7만 명이나 된다. 훈련병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행사를 ‘진중세례’라고 한다. 훈련소에서 난생처음 교회에 가보고, 세례를 받은 훈련병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회에서는 복음에 관심조차 없던 그들이 훈련소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날 기자와 인터뷰 한 10여 명의 훈련병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나 기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

다”고 했다. 단순히 초코과자를 먹을 수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중세례식은 이 시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훈련소에서 열리는 진중세례식은 청년선교와 군복음화의 최전선이다.

23년 만에 열매 맺은 어머니의 기도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훈련병들의 우렁찬 찬양소리가 세례식의 포문을 열었다. 훈련병들은 세례식이 거행된 연무대강당이 떠나가라 찬양 ‘실로암’을 부르면서 신앙을 고백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 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훈련병들은 목청이 터져라 찬양했다. 이어 세례식이 거행됐는데 장관이었다. 50개의 방석에 도열한 온누리교회 목사들과 세례를 돕는 장로, 권사들의 섬김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집례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줬고, 훈련병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세례를 받았다. 유난히 많은 눈물을 흘리는 훈련병이 있었다. 그 훈련병의 이름은 황진양이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다. 먹는 것, 입는 것, 어느 하나 편한 것이 없었다. 잠자리에 누워 바라본 천장조차 낯설었다. 벌써부터 남은 군 생활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걱정이 태산이었다. 입소 3일 만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진중세례식.

에 수요예배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에 갔다. 초등학교 때 몇 번 가본 것이 전부였는데 교회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연무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어머니가 왜 그렇게 교회에 가라고 사정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날 온몸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간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생겼다. 세례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단박에 신청했다. 세례식을 기다리면서 고된 훈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마침내 세례를 받았다.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른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꼭 참고 또 참았다. 그런데 물에 젖은 머리를 닦아주시는 권사님들의 손길과 기도소리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권사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동안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께서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데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힘을 주신 것처럼 어머니에게도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제 군 생활이 두렵지 않다고 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황진양 훈련병의 어머니가 아들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황 훈련병은 당장 편지를 쓰겠다고 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열매를 맺었다고 말이다.

이날 황 훈련병처럼 세례를 받은 5,316명 훈련병 모두가 가족, 친구, 지인 등 누군가의 기도가 맺은 열매들이 틀림없다. 나라와 민족, 군복음화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목회칼럼



손신국 목사
(군선교)

논산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김종천 담임목사님께 들은 바로는 논산훈련소에서는 연간 18회에 걸쳐 7만여 명의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 올해는 7만6천 명 정도가 세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셨다. 지난 5월 28일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이 주관한 진중세례식에서 훈련병 5,316명이 세례를 받았다. 50개의 방석이 놓여졌고, 그 방석 옆에는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자리했다. 그 뒤로 훈련병들이 길게 줄

을 섰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 모습만으로도 큰 감동이 있었다.

나는 훈련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엄숙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약 3년 전, 군선교팀을 처음 맡았을 때 진중세례에 대해 “선물을 주니까 마음에도 없이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숫자만 많을 뿐 은혜가 별로 없다”는 소문도 들었다. 그때문에 한동안 색안경을 끼고 진중세례식을 지켜보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진중세례예식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그 어떤 세례식 못지않은 진정성 있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점이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훈련병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일까 감동이 더욱 컸다.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았다.

약할 때가 바로 강할 때

“복음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청년들이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곧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을 때, 하늘의 큰 축복을 받았음을 잊지 말라.”

안정적이고 익숙했던 고향 집, 가족을 떠나 낯설고 불편함이 만연한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은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이 낮고, 가난해져 있다. 누구도 자신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부모님도 친구도 함께 할 수 없다. 바로 그때 자신을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절대자에게 나아가게 된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네 힘으로도 안 되

고 네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가 바로 강할 때’이다. 훈련소에 들어와 그들의 심령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셨고, 그 결과 수많은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되었다. 이번 진중세례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많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날로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날 세례를 받은 5,316명의 훈련병들을 위해서, 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문화방송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간판 코너였던 '러브하우스'를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정이 열악한 사람들의 집을 예쁜 집으로 만들어주면서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선물했던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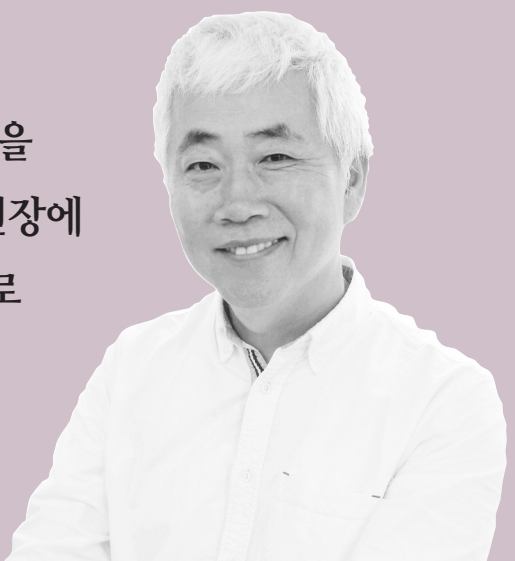
유명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러브하우스가 배출한 스타 건축가들이 많다. 그들 중 흰머리가 인상적이었던 이가 우리가 만날 주인공이다. 김원철 소장,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잿빛 머리와 조용한 말투가 그의 트레이드마크다. 지난달 24일, 양재 온누리교회 두란노서점 2층 카페에서 김원철 소장을 만났다. 그가 오는 13일 아프리카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로 떠난다고 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러브하우스 건축가에서 생명 살리는 건축가로!

아프리카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로 떠나는 김원철 선교사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뜨거운 현장에
저를 불쏘시개로
세우셨어요.”



김원철 소장이 오는 13일 아프리카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로 떠난다.

김원철 소장은 아프리카 C국에서 정영열 장로(본지 1096호 보도)를 도와 유치원 건립을 하다 인터뷰 이틀 전인 22일 돌아왔다. 그을린 얼굴보다 더 새카매진 손등이 그가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오자마자 인터뷰를 하게 돼 피곤할 법도 한데 아프리카 C국에 있는 정 장로를 먼저 걱정했다.

“아쉬운 마음이 무척 커요. 마치 전쟁터에서 저만 빠져나온 기분입니다.”

그는 2004년 이지선 작가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됐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문인 선교사로 신앙이 자란 이야기가 무척 궁금했다.

버스 창 너머로 본 그 십자가 때문에

김원철 소장이 방송출연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을 때 생일 선물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선물 받았다. 단순히 인간승리 스토리인 줄 알았다. 그래서 책을 다 읽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인 중에 이지선 작가와 초등학교 동창생이 있었다. 그의 소개로 이지선 작가를 만나게 되었다. 이지선 작가를 만나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런데도 그녀는 태연했다. 그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선이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농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선이 같은 모습이었다면 밖에 나가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나라면 못 살 것 같은데 지선은

너무나 당당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저 놀라울 뿐이었어요.”

그녀의 긍정적인 모습은 마인드컨트롤을 잘 해서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녀를 붙잡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졌다.

“지선이가 미국에 가기 전에 저를 교회로 부르더라고요. 그때 양재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마침 하용조 목사님이 지선이가 초대 한 친구가 있다며 저를 단상으로 불러내셔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김원철 소장은 교회에 착실하게 다니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친구인 이지선 작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지선이에게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설교가 지겨웠으면 다니지 않았을텐데 목사님 설교가 재미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아웃리치도 가고 새벽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금씩 변해갔다.

“하나님께서 제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해 바로바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루는 부산 출장을 가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설교 내용이 갑자기 떠올랐다. 부산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죠?”라고 기도하고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버스 창 너머로 십자가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무심히 던진 질문들에도 바로 답해주는 하나님 덕분에 교회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아웃리치를 통해서도 신앙이 성장했다. 한번은 팀원 중에 막노동을 하던 청년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한테 많은 존경을 받는 김원철 형제님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자신감을 얻었어요.”

사실 그는 사무실에서만 일해서 현장사정은 잘 몰랐다. 막노동 하는 것에 대해 자존감이 낮아져 있던 청년이 유명한 사람도 자신과 절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을 알고 자존감을 회복한 것이다.

“그 친구는 저를 보고 자존감을 회복했고, 저는 그 친구를 보고 자극을 받았죠. 십일조에 대해서요.”

막노동을 하면서도 꼬박꼬박 십일조를 내고 있다는 그 형제의 말이 김 소장의 가슴에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당시 김 소장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던 상황이라 십일조를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보고 십일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도 발견하기 시작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출세와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2008년 사업을 완전히 정리했다. 망한 것이다. 사실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이상하게 회사가 문을 닫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진짜로 문 닫게 될 줄이야. 당시만 해도 그는 겉모양만 그럴싸하지 속은 좋지 않았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너무 힘들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믿고 난 이후 자꾸 정직함에 대해 말씀하셨다. 결국 그는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했다.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 되어버렸다.

“세금을 끝이곧대로 내고, 나이트클럽이나 사당(祠堂)을 만드는 의뢰는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서요. 그렇게 일을 골라서 하다보니까 정작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중년 남자에게 사업은 분신과도 같은 것. 그런 사업이 망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든 시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버텼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하면서 회복되었다.

“예배드릴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응답을 잘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때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죠. 회사 문을 닫고,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보호를 받은 것처럼 저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업이 망하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이해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하나님이 저에게 왜 돈을 안 주시고, 사업을 망하게 했을까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세상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려고 돈을 안 주시고, 사업을 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고난이 감사가 되었어요. 없어져야 할 것들은 없애시고, 가져야 할 것을 주셨어요. 사업은 망했지만 아내와 아이를 주셨어요. 지금이 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제는 생명 살리는 건축가!

신학대학원 졸업 후 2011년 다시 사무실을 열고 이름을 ‘Architect 4 Life’라고 지었다.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러브하우스 방송을 하면서 도와준 장애인들의 재할을 보면서 그 생각을 더욱 굳혔다.

“하반신 장애를 가진 친구의 집을 고쳐준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에 살던 집에서는 죽음만 목상했는데 지금은 제가 고쳐준 집에서 꿈을 꾸게 되었다고요.”

당시에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그 집을 고친 것이 그 친구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생명을 살리는 건축가로 살기로 서원했다.

그는 올해 1월 선교사 훈련을 받았다. 본격적으로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였다. 그 전초전으로 지난달 아프리카 C국을 다녀왔고, 오는 13일 또 다시 아프리카로 떠난다. 이번엔 가만 무려 30개월이나 그곳에서 지낸다. 30개월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올 거라는 기자의 질문에 웃으면서 말했다.

“한국 안 들어오려고요.”

자신이 필요한 곳을 찾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가리지 않고 갈 것이라고 했다.

“선교 현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자리에요. 평화와 기쁨도 있지만, 어려운 탄방울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현장에 저를 세우시고,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좋고 감사합니다.”

전문가 칼럼

1. 현대인의 정신건강
2. 조현병과 우울증
3.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
4. 문학과 신앙

문제는 스트레스!

제때 치료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어야

지난달 17일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었다.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30대 남성이 무참히 살해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문지마 범죄(동기없는 범죄)로 규정했다. 정부는 정신질환자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언론은 조현병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다. 조현병, 우울증 같은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신의학과 남윤영 전문의가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주



정신의학과 남윤영 전문의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과장)

최근 성인병과 암의 예방이나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건강은 나와 관계없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 성인 28%는 한번쯤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한다. 그만큼 정신질환은 매우 흔한 병이다.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조현병이나 조울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을 먼저 떠올리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원인 불명의 소화 불량, 자주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의 먹먹함을 느끼거나, 두통, 가려움증, 피로감에 시달려 봤다면 한번쯤 진단해 봐야 한다.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주위에 정말 많다. 불면증, 부정적 언어, 강박증, 집중력 저하, 불안과 초조 같은 현상을 가진 사람도 흔하다.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는 문지마 살인, 보복 운전,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이나 정신건강 이상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발병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뇌의 작동 기전을 잘 모를 뿐 아니라, 뇌가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 양육과 성장 과정, 기질과 성격, 외부 환경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현대과학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을 해롭게 하고, 정신질환 발생을 높이고, 회복과 정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분명하다.

정신건강의 이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유전자와 기질, 성격, 성장과정, 대인관계와 사회적 경험에 의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기에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학습과 성장, 발달을 방해한다. 또 교우관계의 어려움이나 외톨이, 게임 과몰입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등교거부나 술, 담배, 각성제 오남용, 공격적 행동, 정신질환, 자살로 발전하기도 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우울감, 불안, 초조, 집중력 저하, 불면증 등이 흔하게 올 수 있다. 직장에서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심화된다. 과도한 음주나 흡연, 폭력적인 말과 행동, 심하면 자

살이나 정신질환으로까지 발전한다.

가장 흔한 정신질환은 우울증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 제때 필요한 도움이나 치료를 받지 않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한 이후 치료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기간이 약 1년 8개월로 미국(1년)이나, 영국(7개월)보다 상당히 긴 편에 속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정신의학과를 찾는 대신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다른 의료기관을 전전하기 일쑤다. 정신건강의 문제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된다.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치료 반응도 나빠지고, 결국 당사자와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 배가 된다. 심한 경우에는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가장 흔한 정신질환은 우울증이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10명 중 6명은 자신이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우울증 환자 중 치료를 받는 사람은 전체 환자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만 하더라도 정신질환자로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한다. 병과 치료 방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된다. 직장이나 학교생활 같은 사회적 기능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따라서 정신건강을 잘 관리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정신질환이나 정신건강 문제로부터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정신건강을 튼튼하게 하려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정신건강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몇 년 뒤 불면증, 고혈압, 우울증, 자살 같은 문제로 불거지게 된다.

솔루션은 운동과 유머, 섬김과 베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가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문제를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스트레스는 성격이나 삶의 습관, 내면의 약점과 관련된 것이 많다. 이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것과 같다. 내 삶의 연약한 부분을 보



정신건강 치료기간

한국 - 1년 8개월

미국 - 1년

영국 - 7개월

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을 키우는 데는 운동이 좋다. 운동은 몸의 모든 근육을 쥔 없이 수축과 이완을 시켜준다. 뇌를 향해 건강한 자극을 보내고, 뇌는 스트레스를 상쇄하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뤄서 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과 운동하면서 눈빛과 표정, 몸짓과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감정의 교류를 이뤄야 한다. 이러한 교류는 스트레스를 푸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증상에 변화가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거나 보건소의 정신건강센터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한 마음정신회복예배에서 정신건강 상담이나 온누리상담실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약물을 사용한 치료다. 둘째, 정신치료나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비약물적 치료다. 환자 특징과 상태에 따라 제공되는 치료가 다르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와 진료기록은 암이나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

요즘 자아회복과 심리에 관한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책에 나온 대로 해보지만 행복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세상의 학문과 이론이 원하는 방법이 나를 이해하고, 문제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지만 결론적으로 맞춤형 정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사람의 스트레스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학 이론을 입력한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내 문제를 넣으면 인생에 해답이 나올까?”

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나를 둘러싼 환경,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까지 세세히 입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삶이나 속마음은 고사하고 내가 태어난 목적이나 고통의 이유를 제대로 모르면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나를 만든 제작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제작자가 나를 만든 이유와 목적, 내게 가장 잘 맞는 방향과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내 고통과 문제

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나를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해야 한다. 정신건강을 더욱 튼튼히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한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는 타인이 내 의견에 공감하는지, 좋아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편이다. 심지어 상처를 받았다며 원망도 한다. 그러나 그 사람도 내게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내가 예수님의 오백 데나리온의 손해를 끼친 사람도 섬기고, 베푸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이타주의 또는 섬김이다. 정신의학적으로 유머와 함께 가장 훌륭한 자아 기능이다. 유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력적인 선물이다. 재치 있는 유머는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적막을 깨고, 긴장을 누그러트린다. 말씀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위트를 발견할 수 있다. 유머는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계속 사용하면 점점 잘 하게 된다.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기를 권한다.

성경에도 정신질환이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한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다. 성경 배경이 되던 시기와 21세기의 치료방법이 같을 수는 없다. 정신질환이나 정신건강 문제의 치료법은 과학적인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현대의학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현대의학은 하나님께서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의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다. 정신질환과 정신건강의 유익을 위해 현대의학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다. 그 도구를 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정신건강 세미나

주제: 우울증과 조울병 극복하기

일자: 6월 11일, 18일(토)

강사: 6월 11일 - 남윤영 전문의

6월 18일 - 장순우 전문의

문의: 고경아 집사(010-3093-1753)

최혜경 권사(010-3792-0071)

특별기고_ 삼위일체의 본질과 핵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인 동시에 동등한 세 분

지난달 22일은 삼위일체(三位一體, Trinity)주일이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동시에 동등한 세분이 라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과연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황재명 목사가 삼위일체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 고찰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황재명 목사
(강서광동체)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정체성(예: 네 자신을 알라)에 대한 질문 말고 신(GOD)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신이 인간에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려 한 경우는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해 온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질문하고 있다. 우선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신 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 주어졌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 16:16)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향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가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요 20:28)라는 고백으로 이어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하나님이시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먼저 증거하고 있는 존재는 제자들이 아니라 귀신들이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음이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마 8:29, 막 3:11, 눅 4:41).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며(빌 2:6-9), 나아가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뜨거운 신학적 논쟁과 다양한 해석, 심지어 이단적 교파들을 몰고 온 이슈가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질문이다.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와 제자들의 고백과 같은 신앙적 선포가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개념이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앞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성경 66권에는 단 한 번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루카 로세티의 성 삼위일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삼위일체라는 신학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며, 삼위일체 개념을 정립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On the Trinity)>을 저술한 어거스틴에 의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교리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 후부터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인간이 만든 용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논리적·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그 어떤 것도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한 것은 없었다. 이는 하나님 정체성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개념화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왔을까? 약 3400년 전부터 1500년 동안 쓰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66권의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절대적인 근거와 토대가 되어야 한다.

구약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인 유대인과 무슬림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과연 교회가 경배하는 하나님과 동일할까? 오늘날 이슬람교는 “성경 속에 계시된 ‘여호와’와 무슬림이 믿는 ‘알라’는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인을 현혹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한다. 유대인이나 무슬림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 속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제외하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단어, 신적 호칭을 사용하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 짚뽕 하나님의 개념을 유대교와 이

슬람교가 믿고 있는 것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경전으로 읽고 있는 구약성경을 보면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을 계시할 때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창 1:26).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형으로 계시하신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이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여호와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신약에 들어와 계시되는 성령님(the Holy Spirit)이심을 구약은 세 번에 걸쳐 증거하고 있다(사 51:11, 사 63:10, 11). 또한 구약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호와와 사자’라는 또 다른 신적 존재를 언급하며 하나님과의 동등한 위격으로 묘사하고 있다(창 16:7, 22:11, 출 3:2, 민 22:22 등). 특히 사사기 6장 22~23절을 보면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 그를 여호와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

구약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수 정체성은 신약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해 분명하게 계시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의 세례(눅 3:21~22), 예수님의 지상대명령(마 28:19), 사도 바울의 축복기도(고후 13:13, 고전 12:3~6) 등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대로!

확고한 성경적 사실을 근거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교리를 확립해가면서 논쟁의 소지가 되었던 것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의 논리나 제한된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신약은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공생애 동안 베푼 기적,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증언들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이상의 신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의 신성 다음으로 신학적 논쟁의 요지가 되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인가?’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고전 6:11), 그리스도의 영(롬 8:9), 하나님 아들의 영(갈 4:6), 진리의 영(요 14:17)으로 계시된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이나 반박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성령님이 과연 인격체로 역사하고 계시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있어왔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분명 지성(사 11:2, 요 14:26), 정서(사 63:10, 엡 4:30), 의지(행 16:7, 고전 12:11) 등을 소유하셨고, 나아가 ‘말씀하시고’, ‘찾으시고’,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하시고’ 등의 관계적 사역을 수행하심으로 단순히 영으로 존재하는 신적 위격이 아니라, 성도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교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심이 분명하게 증거되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으로 유일하시며(신 4:39), 동시에 복수로 존재하시고(창 1:26), 하나님의 아들이신(요 3:16)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동시에 하나님 본체이시고(빌 2:6),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며(롬 8:9, 갈 4:6),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시다(고전 6:11). 이러한 성경적 사실을 바탕으로 교리의 토대를 확립한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20세기 신학자 린셀과 우드브리지는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드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지성)을 잃어버릴 것이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증명은 그 어떤 논리적 사고나 과학적 지식, 종교적 이론이나 철학적 사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적 논리나 제한된 경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성경 66권 속에 계시되어 있는 그대로를 경험해야 한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삼위일체의 신비(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동등한 세 분)가 불변의 진리로 고백될 것이다.

삼위일체 진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니까?

2016 온누리장로수련회 'Think Orange'

장로, 권사, 교역자 등 리더십 500여 명 참석

2016 온누리장로수련회가 지난 3~4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스키빌리지 컨벤션홀에서 막 올랐다. 온누리교회 장로, 권사, 교역자 등 리더십 500여 명이 참석했다. 'Think Orange'를 주제로 막 오른 2016년 장로수련회에서는 다음세대를 이끌고 갈 청년들과 차세대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세대에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이번 장로수련회 주제를 'Think Orange'라고 정한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교회(노랑색)와 가정(빨강색)이 연합(주황, 오렌지)해서 차세대와 대학청년들을 품자는 의미다.

장로수련회는 1박2일 동안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개회예배, Think Orange I·II(차세대, 대학청년부 논의), 조별 분임 토의, 중보기도회가 진행됐다.

차세대와 청년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간에는 차세대사역본부 노희태, 석승호, 최혁중, 김종아 목사와 대학청년부 김승수, 최성민, 이서진 목사가 참석해 차세대와 청년들의 위기 및 제안, 온누리교회 차세대 예배 안내, 청년세대의 마음을 얻는 소통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가 끝나자 장로, 권사, 교역자 등 온누리교회 리더십 500여 명은 차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양유식, 최도성, 정운



온누리장로수련회 참석자들이 교제하고 있다.

섭, 윤현덕, 김석인, 김종건 장로가 인도했다.

수련회 둘째 날에는 Orange Talk Talk Show, 이재훈 담임목사의 말씀,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Orange Talk Talk Show'에서는 이해와 공감을 주제로 전날 조별로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차세대를 준비하는 온

누리교회'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박현규 장로(장로수련회 준비위원장)는 "입시경쟁과 청년실업 문제에 내몰린 차세대와 청년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이번 수련회를 준비했다"면서 "우리가 그들을 응원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현주, 이소정 기자

대학부, 캠퍼스 기도모임 'WIC' 개최

허브, 하늘, Pole2공동체 연세대학교에서

온누리교회 대학부 허브, 하늘, Pole2공동체가 캠퍼스 기도모임 WIC(Win the Campus, 워)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연세대학교 삼성관 지하 111호에서 열린 캠퍼스 기도모임 WIC에는 대학생 90명이 참석했다. 대학생들의 기도모임 열기는 무척 뜨거웠다.

이번 기도모임에서는 송준기 목사(웨이처치 대표)가 '예수님의 교

회'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송목사는 "진리에 매료된 예배자들이 캠퍼스에 흠어져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기도모임에 모인 청년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리더십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대학부에서 주최하는 캠퍼스 기도모임 WIC은 4년 전 허브공동체가 'HUB WIC'을 슬로건으로 내걸

고 서강대학교에서 개최한 기도모임에서 시작했다. 대학부 3개 공동체가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성민 목사(대학부 본부장)는 "크리스천들 대학생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기도모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캠퍼스 MC(대표) 신윤영 자매는 "캠퍼스 모임이 지친 대학생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서 "기도모임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재건사업 활발

네팔에서 집 50채, 학교, 교회 건축 중

NGO 더멋진세상이 네팔 고레다라 마을(해발 1,400m)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건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해 4월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고레다라 마을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집 50채, 학교(교실 6칸),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네팔 고레다라 마을 재건사업은 박일규 선교사(온누리교회 파송)가 총감독을 하고 있다. 박 선교사는 "우리가 가난할 때 도움을 받아 성장했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 도움을 주면서 마을도 재건하고, 복음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기독교학술원 월례기도회 및 발표회

'창조론이나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기독교학술원이 주최하는 '제54회 월례기도회 및 발표회'가 '창조론이나 유신론적 진화론이나'를 주제로 지난 3일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개최되었다.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온누리교회 교역자와 기독교학술원 회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제54회 월례기도회 및 발표회는 1

부 경건회, 2부 발표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재훈 담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경건회에서는 한국교회, 사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이어졌고, 발표회에서는 이은일 교수가 '유신진화론 비판과 성찰', 이병수 교수가 '점진적 창조론 비판과 성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62회 성령수련회 참가자 모집

62회 성령수련회가 '성령과 권능'을 주제로 7월 2일 3시부터 1박2일 동안 예담원(경기도 양주시)에서 개최된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성령수련회에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의 사역, 성령에 대한 예언과 성취, 성령의 은사와 열매, 성

령과 영적전쟁을 주제로 박성은 목사(서빙고)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7월 1일까지 아이스쿨과 전화, 통합안내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60명을 모집한다. 자려는 동반할 수 없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서빙고 011-1720-5221

양재 010-8955-3610

/ 이소정 기자

CGNTV 정기개편 단행

나눔, 선교, 미래 방향으로 프로그램 편성



이번 개편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40분에 방영될 '김영우의 스윗 사운즈'.

CGNTV가 지난 1일 정기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CGNTV 정기개편 방향은 나눔, 선교, 미래다. 나눔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방송을 실현하는 것이고, 선교는 선교교육방

송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나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는 다음세대를 위한 차세대 맞춤형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프로그램들을 많이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최윤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거룩한 바보들'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방영되고, 정은아 아나운서, 개그맨 표인봉, 방송인 이지희가 출연하는 '통일 버스 함께 갑시다'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전파를 탄다.

가수 스윗소로우의 보컬 김영우가 출연하는 '김영우의 스윗 사운즈'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40분에 방송된다. 이외에도 '우리가 몰랐던 무슬림 시즌2'가 6월 9일 오후 4시 50분에 방영된다.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CGNTV는 케이블 C&M 703번, CJ헬로비전 702번, IPTV KT Olleh tv 237번, SK B tv 554번, LG U+ tv 183번에서 볼 수 있다.

■ 시드니 와이미션 수료 간증



/ 송상호 성도(시드니 온누리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열방이 주를 기뻐하게

와이미션(Why Mission?) 강의 신청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와이미션에 등록했다고 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도 참석하게 되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했다.

와이미션 강의에서 목사님은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드는 것이다. 삶에 공의가 없으면 절대 선교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선교에 눈을 뜨게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베드로를 묵상했다.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기도로 구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사실 나는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선교는 보내는 선교와 나가는 선교가 있는데 보내는 선교사는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그들을 손수 만져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셨다. 나도 그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을 배웠다. 성경책 한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모른다. 집안에 몇 권의 성경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다. 지금까지는 타문화와 타종교에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신학적인 유연성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르쳐주신 사랑을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내어주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했다. 이번 와이미션을 통해 신앙의 척도를 점검하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열방이 주를 기뻐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 북한선교학교 수료 간증



/ 윤은혜 성도(S브릿지공동체)

통일시계가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먼 옛날 노래처럼 느껴진다. 나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마치면서 양육자님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삶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과 북한문제에 눈과 귀를 닫고 지냈다는 것을 깨닫고 ‘13기 북한선교학교’에 참여하게 되었다.

북한선교학교에 참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내가 속한 조 이름이 ‘량강도’였다. 생소한 지명 ‘량강도’에 대한 기도제목을 나눠주었다. 중보기도에 서 돌랐던 나는 나눠주신 종이를 보고 그냥 읽으면서 기도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읽기만 하었는데도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매주 북한선교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북한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느꼈다. 북한의 주체사상, 경제, 인권, 영적문제, 통일 등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북한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됐다. 북한의 정권이나 통일에 대한 문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도 깨닫

게 되었다. 어쩌면 나는 듣기만 해도 불편하고,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북한 문제를 회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선교학교를 통해 북한의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큰 현실의 문제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북한 땅이 생각보다 가까워 깜짝 놀랐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나의 가족, 친구, 이웃과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남한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면 이에 걸맞은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졌으리라고 생각한다. 도라산역에는 멈춰진 독일의 통일시계와 계속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통일시계가 있다. 그 시계가 멈추는 날은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계를 멈추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거창하게 큰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북한을 위해 진심으로 중보하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마음들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통일, 영적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 유아세례간증



/ 아이: 신예준, 부: 신성호 모: 고수희

온유하고 신실한
종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세 번째 보물 예준이가 태어난 지 22개월이 되었다. 예준이를 임신하기 전 남편은 셋째를 낳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린 딸들을 키우면서 육아에 지쳐 있던 나는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셋째를 바라보는 시어른들께서 꾸준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다.

어느 주일 둘째와 함께 영아부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다. 기도를 하다 느닷없이 “하나님 아이는 힘들어요”라는 고백이 나왔다. 왜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흘렀다.

“사랑하는 딸 수희야, 네가 힘들고 고생을 하라고 아이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란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들리는 그 음성에 감사했다. 나는 그해 임신을 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기가기에 감사함으로 낳아 키워야겠다고 다짐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퇴근한 남편과 함께 기도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보내 주셨다”고 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나 또한 같은 마음이었다. 남편에게 그 말을 들으니 더 기뻐했다. 아이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아이를 축복하며 예배를 드렸다. 예준이를 축복하고 예배드리면서 느낀 점이 많다. 힘들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반성했다. “셋째를 키우면서 감사의 고백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임신기간 중에 예준이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 같다. 눈에 보이는 두 아이가 먼저였고, 불편한 내 몸만 신경 쓴 것 같다. 그래서인지 예준이가 태어난 날 눈물이 많이 났다. 만나서 반갑고, 사랑스러운 감정도 있었지만 뱃속에 있을 때 무관심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였다. “이제는 사랑만 해주게”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 예준이가 세례를 받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세례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란다. 세상 가운데 깨끗하고, 구별된 그릇으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온유하고, 신실한 종이 되기를 기도한다.

■ 러브소나타 오카야마를 다녀와서



/ 박준기 관장(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더 넓게,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지난달 18~19일, 일본 오카야마에서 러브소나타가 울려 퍼졌다. 오카야마는 일본 복지의 선봉에 있는 지역이다. 오카야마의 복지를 이끈 3인이 모두 크리스천이었다는 점, 의료에서 복지로 공헌했다는 점이 오카야마 복지의 특징이다. 미국에서 파송되어 ‘박애회’라는 병원을 세우고, 선교활동을 한 아담스 선교사로부터 착박했던 오카야마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 바통을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린 이시이 주지가 이어받았다. 의사이며,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이시이는 당시 관동대지진 후 수천 명의 고아들을 국가의 지원 없이 돌보았다. 그 일을 계기로 사회복지법인 아사히카와소(오카야마에 있는 종합복지시설)가 탄생했다.

복지재단팀은 아사히카와소를 견학했다. 아사히카와소의 창립 이념은 ‘경천애인(敬天愛人)’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따랐다고 한다(마 22:37~40).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종합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다. 의료와 복지와의 융합, 지역 밀착을 통한 지역 복지를 실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심한 장애를 가진 자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에서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었다. 복지에 믿음이 더해지고, 의료가 더해지고, 지역 사회를 위해 타종교와 타 기관까지도 연합하는 점이 대단했다.

오카야마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고 한다. 믿는 자들의 목을 잘라 묻은 무덤이 있다고 한다. 믿는 자의 목을 자르던 6곳의 처형장이 모두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 할렐루야! 순교 후에 세워진 교회가 141개, 성도는 8,483명이나 되었다. 바로 그 교회들이 협력해서 오카야마 러브소나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다.

믿음의 선배들의 고귀한 피를 생각하며, 복음에 빛진 자로서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하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일본 땅에 더 많은 러브소나타가 더 넓게, 더 크게 울려 퍼지기를, 내가 그 자리에서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안아주고, 귀 기울여준다면



이화영 장로
(분당A공동체)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0년에 사람들이 겪게 될 질병 1위가 ‘우울증’이라고 한다. 현대사회는 사람들을 경쟁심리로 몰아가고, 부익부빈익빈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젊은이들과 노년층 간에 세대 격차가 심화되고, 좌절감을 겪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청년들은 자신이 사회에 없어도 될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무기력에 빠진다.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죽음의 그림자에 직면하게 된다. 201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우울증의 경우 15%가 자살시도를 하고, 자살하는 사람의 88.5%가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증을 가볍게 여긴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많지만, 심화됐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몸의 건강 못지않게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육체 못지않게 마음의 건강도 챙겨야 한다. 최근 들어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 30대 남성이 강남역에서 묻지마 범죄를 일으켰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칼로 찔러 죽인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조현병’ 환자로 4차례나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사회에서는 조현병 환자를 구역으로 몰아넣고 있다. 언론의 재조명 때문인데 이 병에 대해 부각시킨 만큼이나 조현병 환자들 또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조현병, 우울증 환자들은 폭력적이

지 않다. 10명 중 1명이 이상행동을 한다. 오히려 그들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는 그 사건으로 그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다.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

필자는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우울증 환자가 있다. 바로 ‘엘리아’다. 엘리아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 사건이 해결되었고, 영적 전투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나 물리쳤다. 그러나 갑자기 우울증에 빠졌다. 탈진이었다. 엘리아는 큰일을 해내고 자신을 돌아보니 두려움을 느꼈고, 지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다. 천사를 보내 안아주셨고, 간단히 먹이시고, 필요를 공급해주셨다. 그것이 탈진한 이들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는 방법이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주셨다.

하나님은 상담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장소로 이끄신다. 우리는 매주 한마음정신회복에 배에서 엘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한마음정신회복에 배는 환우 뿐 아니라 가족들도 참여하고 있다. 환우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지속되는 이유는 가족들이 외면하기 때문이다.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정신적 질병을 앓는 환자의 가족들은 가능하면 마음을 열고, 환우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해줘야 한다. 양재 한마음정신회복에 배에서 오는 11일부터 2주 동안 ‘우울증, 조울병 세미나’를 연다. 더 많은 가족들과 환우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안아주고, 귀 기울여준다면 치유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문의 : 010-3093-1753, 010-3792-0071

권사칼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은경 권사
(어머니학교 대표)

나는 올해로 어머니학교를 섬긴지 18년, 가정사역을 시작한지는 20여 년 되었다. 지금까지 어머니학교와 가정사역을 섬기면서 느낀 것이 있다. 요즘은 ‘가부장’에서 ‘가모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에도 균형이 중요한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인지를 생각하게 됐다. 이 균형은 남녀평등과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신 목적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돕는 배필이 보조자의 역할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 가정이 달라진다.

여자는 관계중심적인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창조되었다. 돕는 배필은 남편이 가장, 제사장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남자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반드시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타락으로 만들어진 선악과공동체를 다시 생명나무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회복에서 그치지 않는다. 회복된 가정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 어머니학교는 이것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머니학교를 수료한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닫고,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일본 어머니학교에서 만난 한 여성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 여성은 한국인이었는데 대만 남자와 결혼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맞으면서 지냈다. 결국 아이 둘을 낳고 일본으로 도망와서 살고 있었다. 17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학교에서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마음의 치유를 얻고 다시 대만으로 갔다. 내가 항상 어머니학교에서 말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여성에게 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은 ‘어머니’라는 말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마 5:9).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화평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성이 모든 주권을 가졌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행복하려면 관계 가운데 먼저 화평이 있어야 한다. 여성이 낮아지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형상을 존귀하게 보는 것을 말한다. 겸손해지는 것은 내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학교 축복의 인사도 ‘오늘 자매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해질 것입니다’이다. 왜냐하면 당신을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영향으로 바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어머니학교를 하면서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어머니학교를 하면서 이것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기다려주고,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여성들도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관계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알아가기를 바란다.

신앙에세이



정한호 전도사
(여호수아공동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회를 정의한다. 저마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회가 진리라는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나는 오늘날 사회를 ‘소통을 희구(喜懼)하는 사회’라고 말하고 싶다. 희구(喜懼)라는 단어는 ‘즐거움과 두려움’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소통을 즐거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통을 두려워한다.

소통을 갈망하며 즐거워하는 현대인들의 모

습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라는 매체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고, SNS를 통해 갖가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듯하다. 젊은 세대일수록 소통에 대한 갈망이 더욱 크다. 저마다의 삶을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보여주고, 서로의 삶을 나눈다. 이제 소통이라는 단어는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말이 되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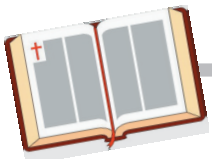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소통을 향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두려움도 드러난다. 바로 ‘익명성’이다. 사람들은 소통의 공간에서 진짜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린다.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에 기대어 소통한다. 그들에게 진정한 소통은 두려움이다. 그래서 소통을 원하지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

면에서 현대인들은 소통을 즐거워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을 경험한 인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바로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인물이다. 성경에 에녹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다. 다만 우리는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간 인물이라고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바로 이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두려움이다. 에녹의 삶은 죽음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인 죽음을 극복했던 에녹의 삶에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했던 기쁨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히 11:5)로서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인간에게는 감출 수 있겠지만, 그분의 영광 앞에서는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인간은 그 앞에서 진정한 소통의 즐거움을 택할 것인지, 여전히 하나님과의 소통을 두려워하며 숨을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된다. 우리는 진정한 소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의 어떤 통로도 우리로 하여금 진짜 소통의 즐거움을 맛보게 할 수 없다. 헛된 매체, 소통의 허상을 찾아 언제까지 헤맬 것인가?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 존재의 고독함을 맡길 것인가? 하나님과의 소통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두려움을 넘어선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과 통(通)하라! 모든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변화될 것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더러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10~11절).

바울은 이 상황에 이른 이유에 대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싸움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일부가 “이 사람의 주장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점점 커졌을 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빼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권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보는 로마인들은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주장을 지지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공명정대하게 이 사건을 봤을 때 바울이 죽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편에 설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시 최고로 발달했던 로마의 법질서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질서는 하나님의 통치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면 불완전해 보이는 법질서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법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준법의식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불법주차 지역에 주차를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로마의 법을 통해서 보호하셨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나면 유대인들 중에 40여 명이 테러리스트로 자원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와 음모를 꾸몄습니다. 로마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470여 명의 로마 군대를 동원

해서 밤 9시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비밀 호송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시민권자라도 불의하게, 불법적으로,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로마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법질서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왜 이 나라의 법질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정 가운데 주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행 18:9~11)고 하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를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행 22:18)이라고 하셨습니다. 23장에서는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장차 바울이 당할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날 40여 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자원하고,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날 밤 주님을 체할하지 못했더라면 패닉 상태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까.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11절).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바울에게 주시는 위로는 “내가 이토록 담대했으니 이제는 쉬어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했으니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로마에서

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주님, 어느 곳이든 보내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저와 그곳에 함께 가주십시오. 어떤 집이든 주십시오. 오직 견뎌낼 힘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증언하라고 하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고난과 위험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네게 준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 바울을 보호한 것처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굽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가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네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사 43:1~2).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데이빗 리빙스턴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아프리카에서 모진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에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부패한 정치, 종교적 세력과 로마의 정치 세력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한 비양심적인 유대 종교 세력과 편견 없이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로마의 정치 세력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신사적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바울이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신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견고한 영혼, 담대한 영혼, 흔들리지 않는 사명에 붙잡힌 영혼을 우리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정주호의 크리스천 건강관리

“비만은 유전이 되는 동시에 전염이 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됐다. 비만은 많이 먹고,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찌는 것이다. 그 뉴스에서는 비만을 대단한 질병인 것처럼 다뤘다.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 인류가 해결해야 할 질병을 비만”이라고 거론하기도 했다. 비만 다음 이슈는 스트레스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비만일 경우 자녀가 비만일 확률 40%, 부모가 둘 다 비만일 경우 자녀 80%가 비만일 확률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대체로 비만한 가정에서 자라거나 비만한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면 살이 확연하게 빨리 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반대로 설명하면 비만하지 않고, 건강한 부모의 자녀는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는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신체 건강을 이루는 3대 덕목은 건강한 식사, 수면, 운동이다. 건강한 의지와 실천은 자녀들의 뇌와 정신적 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필자는 크리스천들의 신체 건강과 신앙의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3가지 덕목을 이야기 하고 싶다.

첫째, 영양식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꾸준히 먹는 것도 필수다. 둘째, 피로하

지 않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늘 기도와 묵상을 통해 내면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 셋째, 아무리 잘 먹고, 잘 자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는다. 건강하지 않은 몸은 점점 더 약해지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 실천적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 운동은 자녀들의 뇌와 정신적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즘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이들의 일과가 성인과 다를 바 없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놀이를 즐길만한 여유가 부족하다. 평소엔 놀면서 운동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자발적으로 운동이나 활동을 하지 못한다. 기껏해야 스마트폰 게임이나, TV 시청, 책을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가 짜 놓은 뻘뻘한 일과 표대로 움직이고, 학교와 학원, 집에서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세 이후 41.3%의 아동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 1.8%의 아동만이 신체활동이나 운동, 여가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의 31%는 일주일에 단 하루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신체 건강이 정서

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이어진다. 몸을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은 신체 발달도 더디고, 또래 아이들보다 놀이와 운동능력이 뒤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신감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건강한 몸이란 어떤 몸일까? 건강한 몸을 이루는 5가지 기본 요소는 지구력, 순발력, 근력, 균형력, 유연성이다. 지구력을 통해 인내심을, 순발력을 통해 임기응변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근력은 끈기를 만들어 주고, 균형력은 전체를 보는 직관을 가져다 준다. 유연성은 심신의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함께하는 운동은 사회성을 길러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운동 기능은 신체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음과 정서, 두뇌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신체 운동은 정서 함양은 물론 학습 효과까지 좋게 만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자녀의 건강을 위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영, 혼, 육의 성전이 깨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지켜줘야 한다.

정주호 대표
(스타트레인)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 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 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 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 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두란노홀

금요 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 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 (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 (010-3301-2897)

장애허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모세 팀장 (010-5358-3648)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전도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청년자적장애우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최성훈 목사(010-8820-9191)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꿈꿈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꿈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1: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꿈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플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목요일 10시30 / 누리홀

-문의: 안민경 간사(02-3215-3523)

CMN라파팀 의료봉사자 모집

내용: 외국인 근로자 진료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라파실

대상: 간호사(넛째 주 주일 4시~6시)

치위생사(1, 2, 3, 4주 주일 4시~6시)

샘물중고등학교 오픈데이

내용: 샘물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 및

수업참관

일시: 6월 9일(목) 10:30

장소: 샘물중고등학교 4층

문의: 031-714-7091, www.smca.or.kr

IBS 서빙고 토요반 61기 모집

일시: 7월 16일~8월 27일(7주과정)

매주 토요일 오전 10:15~12:3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

문의: KIBI 사무실 02-792-7075-6

이영숙 권사 010-8935-4255

CMN BEE팀 여름 해외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장소: 인도네시아 롬복

기간: 8월 23일~28일

모집: 소아과 의사, 간호사, 약사등 의료진

및 일반 참여자

회비: 130만원

대상: 의료 봉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분

문의: 윤상엽 팀장 (010-9439-1180)

MK, PK 여름캠프

대상: 해외거주 선교사나 목회자의 자녀인

고등학생

일시: 7월 14일(목)~16일(토)

장소: 남한산성 목상의 집

신청: <http://facebook.com/point5onnurichurch/>

문의: 김지예(010-2696-4262)

CMN 마하나임팀 여름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일시: 7월 18일(월)~7월 24일(일)

장소: 인도네시아 롬복

대상: 의료인 및 미용사, 봉사자

사역: 의료 (양한방), 미용, 진료 지원

문의: 팀장 권세윤 (010-8898-3719)

예수사랑부 봉사자 모집

모집: 보컬, 율동

예배시간: 11시 20분

문의: 찬양인도자(010-4201-3113)

*게시판 광고마감목요일오후4시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상민 팀장(010-4720-466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오전 트리니티 강의동 304

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사랑홀(숙명여고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

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충성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도곡 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JDS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공사랑 회원모집

비전: 축구를 통한 선교

대상: 온누리교인 혹은 주변 믿지

않는 남편, 아들, 지인

운동시간: 매주 토 아침 9시~13시경

장소: 방배 혹은 서초동 구장

문의: 오명석 총무(010-

크리스천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 Q1

어설픈 교회오빠가 연애와 직장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면서 꽤 괜찮은 교회오빠로 재탄생되는 이야기

6월 19일 웹 & 모바일에서 만나보세요!



출연 임지규 | 임성언 | 장광 | 전성애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 ARS 060-700-1660

CGNTV
KNOCK 페이스북

